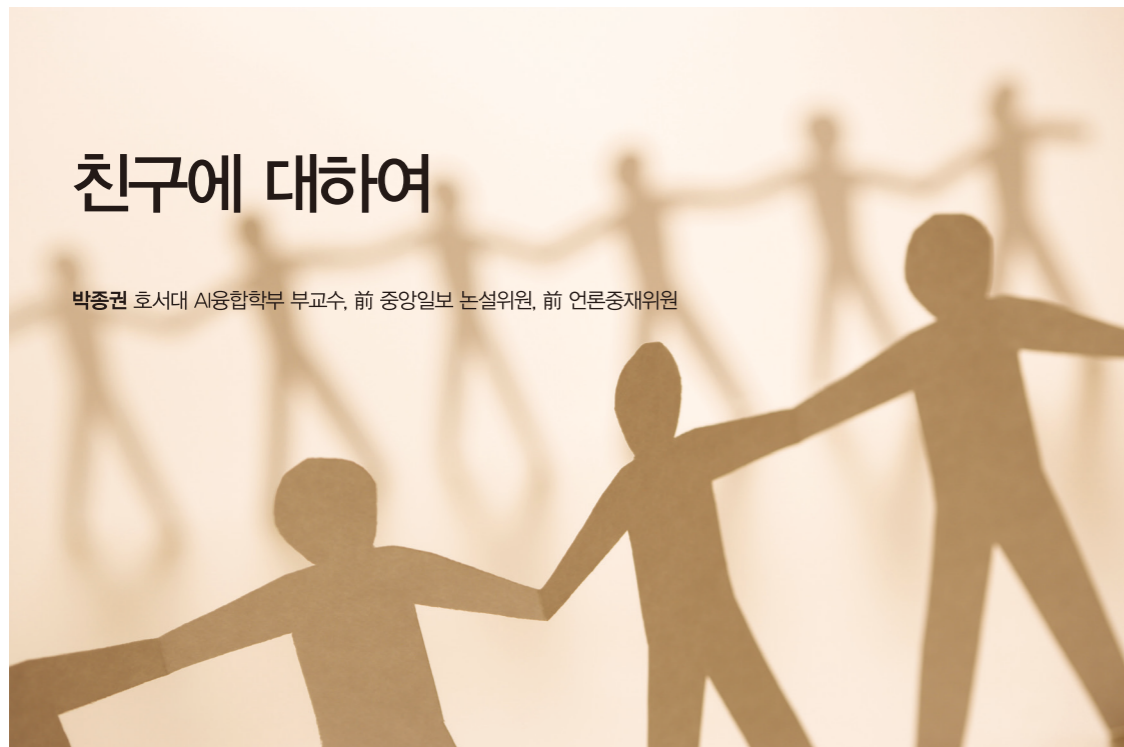


친구에 대하여

박중권 호서대 시융합학부 부교수,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前 언론중재위원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정호승의 시 <수선화에게>는 이렇게 시작한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라는 거다. 그러니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말고, 눈이 오면 눈길을,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는 거다.

정 시인은 시를 쓴 배경도 밝혔다. 산문집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에서다. 48세이던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가 대뜸 “나는 요즘 외로워 죽겠다”고 하소연하더라. 집사람한테 외롭고, 자식들한테 외롭고, 친구들한테 외롭고, 회사 동료들한테 외롭고, 이웃들한테 외롭다는 거다.

이에 “왜 외로운가 생각하지 말고, 외로움을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간이니까 외롭고,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다. 제목은 외로움의 빛깔을 생각하다 붙였다고 했다. “연약한 꽃대 위에 핀 수선화의 연노란 빛이 인간의 외로움의 빛깔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했다. 수선화가 아니라 수선화를 은유해서 인간의 외로움을 노래했다는 거다.

그가 부연하지는 않았지만, 연못에 빠져 수선화가 된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를 떠올렸을 직하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데도 자신의 마음을 열지 못한 나르키소스.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며 그리워한다는 설정에서 인간의 본래적 절절한 외로움이 묻어나지 않는다. 결국 모든 사람은 혼자라는 사실 말이다. 헤르만 헤세의 시 <안개 속에서(Im Nebel)>와도 맥이 닿는다. “살

이 화려했을 때 세상은 친구로 가득했지만, 안개가 내리니 더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안개가 내리면 숲 속 오솔길은 ‘서로 함께’가 아니라 ‘따로 혼자’의 세상이 된다. 어우러져 숲을 이루던 나무와 덩굴과 돌이 제각각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어떤 나무도 다른 나무를 보지 못한다. 모두가 혼자이다. 삶이란 외로움이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혼자이다”고 읊조린다. 그렇다. 친구는 우정이, 연인은 애정이 고프다. 항상 다가가지만, 언제나 저만치 있다.

그래서 그랬을까. 헤세는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정원을 만들었다. 정원은 문명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의 리듬에 자신을 맡기는 공간이다. 혼란스럽고 고통에 찬 시대에 영혼의 평화를 비는 장소였다. 아니, 모두가 혼자라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직면한 그로서는 생명의 순환을 지켜보는 것이 그나마 외로움을 더는 길이였을까.

다시 <수선화에게>로 돌아가자. 시인은 사람만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했다. 인간이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하느님도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물며 인간이라.

정신적인 스승들도 그렇다. 2013년 ‘21세기북스’에서 <슬픈 붓다>, <슬픈 공자>, <슬픈 예수>라는 제목으로 세 권의 책을 펴냈다. 당대의 전문가들이 집필해 내용도 알차지만, 책 제목이 호기심을 일으켰다. 윤희의 사슬을 끊고 색즉시공(色卽是空)을 설법한 붓다, 개·돼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도리를 가르친 공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제시한 예수 아닌가. 이런 위대한 존재들이 모두 슬프다는 거다.

부제목이 이유를 말해 준다. 붓다는 ‘세상 밖에서 공동체를 꿈꾼 이상주의자’라고 했다. 공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위대한 스승의 서글픔’이다. 예수는 ‘세상의 고통을 없애는 저항의 길’을 걸었다. 즉, 이들은 세상 밖 공동체를 꿈꾸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저항의 형극을 온몸으로 견뎠다는 거다. 그래서 슬프다는 뜻이겠다.

그런데 과연 세상 안에서 공동체를 꿈꾸고, 모두가 알아주며, 순응의 길을 걸었다면 행복했을까. 아닐 것이다. 본디 삶이란 고해(苦海)이고,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며, 종말론적 세상이 아닌가. 이들의 슬픔의 원천은 ‘외로움’이 아닐까. 붓다가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 한 것도 인간이 원천적으로 외로운 존재라는 선언이 아니겠나. 헤르만 헤세가 “모두가 혼자이다”고 한 통찰과 같은 맥락이다.

신(神)도 가끔은 외로워 눈물을 흘린다는데, 이들은 일반 장삼이사(張三李四)보다도 더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왜냐하면 ‘친구’가 없는 거다. 모두 부모형제는 있다. 추종자도 많다. 예수는 열두 제자가 있고, 공자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3,000여명에 이른다. <사기(史記)>는 이 중 77명으로 중니제자(仲尼弟子)열전을 지었다. 붓다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던 자리에는焰華示衆(焰華示衆)의 의미를 알아채 미소를 지은 가섭 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중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스승들은 공통적으로 ‘친구’가 없다. 존경하고 섬기며 목숨을 바치는 제자들, 가르치고 이끌고 깨우쳐야 할 민중과 백성과 중생들 속에 홀로 서있는 거다.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따르면 어느 날 공자가 노자를 찾아간다. 예(禮)를 물었지만, 속내는 친구 맺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노자는 “고니는 희고, 까마귀는 검다”며 내친다. 공자가 인의예지(仁義禮智)를 통해 인생살이에서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흰 것이 좋고 검은 것이 나쁘다면, 고니는 항상 선하고 까마귀는 악한가. 본디 그렇게 태어난 것인데 어찌란 말이냐. 흑백은 선악이 아니다. 그냥 두어라. 바로 ‘무위자연(無爲自然)’이다.

머쓱한 공자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한다. “오늘 나는 노자를 만났는데 그는 마치 용 같은 존재였다.” 달리는 짐승은 그물로, 헤엄치는 물고기는 낚시로, 날아가는 새는 화살로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용이 어떻게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틀렸다. 공자는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잡지 못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잡는 것이 아니다. 무형의 당김과 끌림이다. 그물이나 낚시나 화살로 잡을 수 있는 건 실체이지 마음이 아니다.

아마도 공자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뭔가 통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시쳇말로 채인 것이다. 그러한 심경이 논어(論語)의 첫머리 학이(學而)편을 장식한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많은 이들은 공자가 면학, 즉 학문의 기쁨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는 “나는 친구가 없다”는 녀두리로 들린다. 친구와 벗하여 한 잔 술을 기울이면서 흥금을 터놓고 즐기고 싶은데, 친구가 없으니 어찌 하겠나. 그저 책을 벗하는 수밖에 없지 않으나.

다음 줄에 본심을 토로한다. ‘유봉자원방래 불역낙호(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면 기쁘지 아니한가. 그렇다. 앉으나서나 배움을 말하던 공자가 느닷없이 ‘친구’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줄이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人不知而不愠 不亦君子乎)’이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답지 아니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친구가 있어서 찾아오면 좋겠는데 나는 안타깝게도 친구가 없다. 나 자신도 알고 보면 친구로 사귄 만하다고 자부한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헌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근엄하고 어렵게만 생각한다. 그런다고 화를 낼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책이나 읽는 ‘외로운 군자’로 자처할 수밖에.

군자를 자처하는 공자에게 절절한 외로움을 느낀다면 과장일까. 높이 솟은 에베레스트가 얼핏 처연하게 보이는 것도 홀로 우뚝하기 때문이리라. 세계의 정신으로 우뚝 선 붓다와 예수 역시 친구가 그리지 않았을까. 서로 어깨동무하고 부대끼며, 배반양자(杯盤狼藉)하도록 취해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예수의 첫 기적도 축제마당에서 물을 술로 바꾼 것 아니던가.

이렇게 인간은 본원적으로 외롭기 때문에 관계 맺기를 추구하는 거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할 때, ‘사회적’이라는 용어에서 외로움을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는 인간, 늘 혼자인 인간을 본다. 21세기 네트워크 시대에도 인간은 허브(Hub)이면서 동시에 끝단인 터미널(Terminal)이다.

공자는 “친구가 찾아오면 기쁘다”고 했지만, 스스로 친구를 찾아갔다는 얘기는 없다. 예수 말씀대로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해야 하는 법. 친구가 그렇다면 먼저 찾아가야 한다. 마호메트의 유일한 기적이 산을 움직인 것이다. 그는 예수처럼 기적을 보여 달라고 보채는 제자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선다. 저 멀리 산을 향해 “산아, 내게로 오라”로 명령한다.

하지만 산은 꼼짝하지 않는다. 이에 마호메트는 “네가 오지 않으면, 내가 간다”면서 산을 향해 걸어간다. 유명한 ‘이산(離山)의 기적’이다. 결국 오거나 가거나 거리 좁힘이 아닌가. 왼손에 오른손을 마주치나, 오른손에 왼손을 마주치나 박수는 똑같다.

사람들은 말한다. 친구가 한 명 있으면 행복하고, 두 명 있으면 황홀하고, 세 명이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진정한 친구 맺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평생의 친구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금란지교(金蘭之交), 금석지교(金石之交), 관포지교(管鮑之交) 등 친구와 관련한 사자성어가 많은 배경이다.

그래도 관포지교는 조금 세속적인 느낌이다. 사마천은 <사기(史記)> 백이열전에서 “착한 사람은 굶어 죽고, 악한 도적은 천수를 누리니 소위 천도(天道)가 옳으나 그르냐”고 묻고는 곧바로 관안열전으로 넘어간다. 그 첫머리에 소개되는 이야기가 관중과 포숙아의 친구 맺기이다.

관중과 포숙아는 젊을 때부터 지기(知己)였다. 서로를 알아준다는 거다. 관중은 생활이 궁핍해 언제나 포숙을 숙였지만, 포숙은 따지지도 않고 한결같이 잘 대해주었다. 나중에 포숙은 훗날 제 환공이 된 소백을 섬겼고, 관중은 그 정적(政敵)인 공자 규를 모셨다. 소백과 규는 왕위를 놓고 벌

인 전쟁에서 규는 패배해 죽는다. 포숙은 옥에 갇힌 관중을 제환공에게 적극 추천해 목숨을 살리는 것은 물론 제나라가 춘추오패(春秋五霸)의 하나로 우뚝 서는 데 일등공신이 되도록 한다.

그리하여 관포지교는 아름다운 우정의 대명사가 된다. 과연 그 뿐일까. 조금 비틀어 보면 서로 반대 진영에 각각 몸담으면서 시쳇말로 ‘몰빵’의 위험을 분산한 것은 아닐까. 요즘으로 치면 위험 분산이다. 이 시대에는 주인을 잘못 섬기면 죽음이고, 잘 선택하면 영화를 보는 극과 극의 사회가 아니던가.

후세 사람들이 관중과 포숙아의 아름다운 교제에 초점을 맞추지만, 어쩌면 둘이서 손을 굳게 잡고 훗날을 기약했을 수도 있다. 만일 공자 규가 승리했으면 관중이 포숙을 살렸을 수 있는 거다. 단지 포숙의 일방적 우정이라면, 과연 관포지교로 불릴 수 있겠나. 포숙의 너그러움과 현명함을 기려 ‘포숙아의 의리’쯤으로 불리우지 않겠나.

사실 공자도 훗날 관중에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도량이 좁다는 것이다. 그래도 관중의 말은 곱씹을 만하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친구와 지기는 닮은 듯 다르다.

〈사기열전〉에는 한 스승에게 동문수학한 친구들이 서로 배신하고 원수지간이 돼 죽고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음을 전한다. 손자병법의 주인공인 손무의 자손 손빈이 친구인 위나라 방연을 찾아갔다가 두 다리가 잘린다. 그는 나중에 제나라의 군사(軍師)가 돼 아궁이 수를 줄이는 계책으로 방연을 자결하게 만든다.



진시황의 오른팔이 된 이사와 〈세난(世難)〉의 작자인 한비자도 원래 동문수학 친구였다. 하지만 한비자의 재능에 시기심을 느낀 이사에 의해 옥중에서 독을 마시고 죽는다. 군주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움을 설파한 한비자가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한편으론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를 거절하지 않는다(河海不擇細流)”고 진왕을 설득한 이사는 거대한 물줄기의 합류를 막은 셈이다.

영화 〈친구〉는 우정과 배신이 씨줄과 날줄로 엮인다. “노그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희대의 대사를 이끌어내고 “니가 가라, 하와이”라고 차갑게 내뱉던 장동건, 친구인 유오성이 보낸 조폭이 휘두른 칼에 “많이 묵었다 아이기”하면서 숨진다. 제목은 〈친구〉이지만, ‘너와 나’가 언제든지 ‘너는 너, 나는 나’로 변할 수 있는 인간의 알팍함이 깔려 있다. 마치 손빈과 방연, 이사와 한비자처럼.

친구는 늘 그리운 존재이다. 조용필은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디 갔나, 그리운 친구여’라고 노래한다. 최백호는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영일만) 친구’를 떠올린다. 현재진행형이 아닌 과거형 친구이다. 이처럼 친구는 시공간적으로 늘 저만치 있는 존재일지 모른다.

인간은 본디 외로운 존재여서 친구가 있다고 외로움이 완전히 가시는 것은 아닐지 모른다. 그래도 친구가 있으면 외로워도 외롭지 않을 수 있으리라. 플라톤은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에게나 친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다”고 했다. 이런 기준에서 당신은 과연 친구가 있나.

질문이 잘못됐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내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탁을 들어주는 게 친구이다”고 정의했다. 어떤 이유로든 끊어질 수 있는 우정이라면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기준에서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친구인가. 🍷